

#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

##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로서의 재일조선여성문학

신지영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조교수

### 목차

- 1 자기서사 공통장: 뒤늦게 도착하고 있는 ‘재일조선여성문학’
- 2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 속 공백과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
  - 2.1 ‘트랜스내셔널 문학’ 속 공백과 ‘여성문학’ 속 공백
  - 2.2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연구
  - 2.3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특성
- 3 자기서사 공통장의 모색: 아시아의 마이너리티 여성 사이/안의 관계
  - 3.1 ‘탈식민주의/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유입과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 3.2 아시아 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의 실험과 한계
  - 3.3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와 내재적 공통장
- 4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번역·순환과 난민여성문학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8385)

본 논문은 트랜스내셔널문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성, 특히 재일조선 여성의 글쓰기와 문학은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음을 지적하고 최근 재일조선인여성의 글쓰기가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경향을 소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첫째로, 2014년경부터 부상한 재일조선 여성문학의 특질을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라고 규정하고, 재일조선여성이 글 쓰기를 욕망하고 배우고 글을 쓰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 특질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삼는다. 둘째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형성 기반이 된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 활동의 초기 형태들을 살핀다. 이때 재일조선인문학의 경험에 대한 구술이나 증언 등이 관심을 얻기 시작한 1970년대에 초점을 맞추고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마츠리 야요리의 국제적인 아시아 여성 연대 활동 및 그 시기에 한국이 아시아의 여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아시아의 미디어 순환 속에서 왜곡되거나 비대칭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사유했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의 번역으로 촉발된 K-페미 및 K-문학에 일본의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위안부와 식민주의 및 재일조선인여성에 대한 일본사회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배제가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은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유입과 확산, 1970년대부터 형성된 여성들의 자기서사 공통장이라는 관계와 한계,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둘러싼 한일간 출판유통의 비대칭성을 통해,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 중에서도 재일조선여성문학이 읽힐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확산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국문핵심어: 재일조선여성문학, 트랜스내셔널문학,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 K-페미, K-문학, 아시아 여성, 연대

### 1 자기서사 공통장: 뒤늦게 도착하고 있는 ‘재일조선여성문학’

나는 해방 후 오늘까지 녀맹 구와노 분회에서 일을 거들어 왔었지요. 그러나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일 같은 일은 못 거들었습니다. 다만 회비나 거두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 /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모르는 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 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던지요. 나는 굳게 결심을 하였답니다. 「글을 꼭 배워야지…」 이런 굳은 결심이 어쩐지 나의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 나는 분회 성인 학교에 나갔습니다. 여덟 달 동안 하루도 쉰 날 없이 꾸준히 배웠습니다. / 그리하여 지금은 『신보』도 읽게 되고 세상사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해 와도 까닥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앞이 환히 밝아 오는 것 같습니다. / 심 봉사가 물에 빠져 죽은 딸을 만난 기쁨으로 눈이 뜨인 것과 같이 40여년 만에 나의 눈도 뜨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훌륭한 자기 조국을 갖고 현명하신 수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에 아직껏 떳떳한 우리 조국—공화국을 갖지 못하고 일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지 못했더라면 글은커녕 말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 이런 것을 생각하니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가 더욱 밉습니다. /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이 글을 모르는 녀성들에게 오늘의 나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이야기하렵니다. / 정말 글을 배운 후의 나의 형편은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한 없이 흥겹습니다. (시모노세키시 녀맹 구와노 분회 김 삼순(42세),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기쁨」, 『朝鮮新報』, 1962.11.30, 4면)<sup>1</sup>

이 글은 재일조선여성문학일까? 문해능력을 갖게 된 기쁨을 표현하는 이 에세이는 총련계 여성조직인 녀맹 지방 분회 성인학교 소속 김삼순이 쓴 것이다. “김삼순”이란 이름 석자 옆에는 그녀가 속한 조직의 자세한 명칭뿐 아니라 ‘42’라고 나이가 노출되어 있어, ‘문학’이라기 보다는 『조선신보』의 기사 같은 인상도 준다.

1 宋惠媛 편저,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1』, 綠蔭書房, 2014, 10쪽. 편의상 원문에 있던 단락나누기는 /로 표시함.

그러나 이 글은 송혜원이 편집한 『在日朝鮮女性作品集1』에 속해 있다. 송혜원의 관점에서 이 글은 ‘재일조선여성문학’에 속한다. 다시 잘 읽어보면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정동의 변화가 느껴진다. “일 같은 일”은 하지 못했던 울분과 소외감, 아이에게 글을 알려 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글을 배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슴을 부풀게”했다는 기대, 여덟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 문해능력을 획득하자 “눈앞이 환하게 밝아 오는 것 같”다는 변화, 문해가 가능한 생활의 흥겨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 글은 재일조선인 1세 여성의 구술로도 읽힌다. 재일조선인 여성이 문해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과 변화에 대한 구술로 의미를 갖는다. 이 구술에는 아시아의 뜨거운 냉전을 배경으로 재일조선인 사회를 양분한 총련과 민단의 갈등, 김삼순이 총련계 조직에서 처음 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조직의 사상과 글자를 함께 습득하게 된 흔적이 거대 역사와는 다른 형태로 새겨져 있다.

다시금 여성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대표적인 ‘딸 팔아 사는 아버지’ 스토리인 「심청전」을 전유하고 변형시킨 대항서사처럼도 읽힌다. 문해능력을 획득하자, 김삼순은 팔려가는 ‘딸’의 위치가 아니라 눈을 뜬 심봉사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보게 된다.

또 다시 언어에 초점을 맞춰 보면, 일본에서 출판된 자료집 속에 ‘한글’로 수록된 텍스트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재일조선여성문학을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 속에 수록한 한글 텍스트가 아니라, 일본에서 출판된 재일조선여성문학 자료집 속에 수록된 한글 텍스트이다.

김삼순의 텍스트는 매우 짧지만 이처럼, 여러 경계들 위에 있다. 문학과 구술과 기사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어나 일본의 국가 표준어가 아니다. 조직의 이데올로기와 문해능력을 갖게 된 기쁨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조직의 역사만도 개인적 경험만도 아니다. 둘 다이면서 동시에 둘 다 아닐 수 있는 자리, 이중공정이면서 이중부정인 자리, 그곳에 김삼순의 텍스트 혹은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이 자리한다. 송혜원이 편저한 『재일조선여성작품집(在日朝鮮女性作品集)1,2』에는 이와 같은 텍스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최근 재일조선여성들의 문해능력 획득과정과 글쓰기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가 번역되고 있다는 점

에서, 이 공백은, 뒤늦게 도착하고 있는 ‘재일조선여성문학’의 새로운 장소이다.

『재일조선여성작품집』에는 “1945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모국어와 일본어로 재일 조선인 여성들이 쓴 신문잡지의 투고문, 작문, 일기, 편지, 에세이, 소설, 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7, 8세의 소녀에서부터 70대 고령에 이르기까지 무명에 가까운 200여명 남짓의 글”이 모여 있다.<sup>2</sup> 또한 동일 저자의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sup>3</sup>는 재일조선여성의 글뿐 아니라 그녀들이 글을 욕망하고, 배우고, 글을 쓰고, 출판시장에 나타나는 행위 전반을 ‘재일조선여성문학사’가 아니라 ‘재일조선인문학사’ 서술의 핵심에 놓고 있어, 기존 문학사를 창조적으로 해체한다.<sup>4</sup> 송혜원에 따르면 재일조선인문학의 핵심에는 “글에 접근조차 못한 채 생애를 마친 여성들, 쓸 시간과 장소를 결국 못 찾았던 여성들에 의한 쓰여지지 않았던 방대한 작품군”이 있으며, “그러한 부재한 작품의 존재야말로 재일조선 ‘여성문학’, 그리고 재일조선인문학의 연원”이라고 말한다.(송혜원/162쪽)

이러한 재일조선여성의 텍스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본의 출판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경<sup>5</sup>이며, 한국에서는 최근에 번역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송혜원의 연구서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책은 2018년에 번역된 『봉선화, 재일한국인 여성들의 기억』<sup>6</sup>를 들 수 있다. 인류학적으로 의미 있는 책은 재일조선인 1세들이 야간 중학교에서 문

- 
- 2 이한정, 「여성으로서의 생애와 역사」, 박광현 오태영 편저, 『재일조선인 자기서사의 문화지리』 1, 역락, 2018, 137쪽.
  - 3 일본어본은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이하 소명출판본에서의 인용은 ‘송혜원/쪽’으로, 이와나미본에서의 인용은 ‘송혜원-일어/쪽’으로 표시.
  - 4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서평은 신지영, 「부/재의 언어로(가) 쓰다」, 『사이間SAI』 제27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참고.
  - 5 이한정, 앞의 글, 138쪽.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흐름 속에서 보면, 오구마 에이지와 강상중이 함께 작업한 『在日一世の記憶』(小熊英二, 姜尚中, 集英社, 2008) 및 『在日二世の記憶』(小熊英二, 高賛侑, 高秀美, 集英社, 2016)이 주목을 받았고 재일 2세의 구술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6 오문자·조영순, 최순애 역, 『봉선화, 재일한국인 여성들의 기억』, 선인, 2018.(吳文子 趙榮順, 『わたちの在日—「鳳仙花」22年間の珠玉文集』, 新幹社, 2015)

해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벌였던 과정을 구술과 함께 다룬 것으로 2019년에 번역된 『할머니들의 야간 중학교』<sup>7</sup>가 있다. 가족사진 한 장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고, 재일조선인과 피차 별부락, 아이누, 오키나와, 베트남 등 이주여성이나 난민여성의 생애사와 맞물리는 작품으로는 2019년에 번역된 『보통이 아닌 날들』<sup>8</sup>을 들 수 있다.

이들 텍스트가 재일조선여성문학의 새로운 형태로 ‘뒤늦게’ 도착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재일조선여성의 구술, 문해교육, 자기서사를 포함한 폭넓은 글쓰기 행위와 그 표현물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어떤 점에서는 재일조선여성문학의 핵심을 표현하지만, 아직 한국, 일본, 아시아에서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주목받고 번역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글쓰기 행위와 표현물들은 ‘트랜스내셔널 문학’이라는 범주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을 번역하거나 소개할 때에도, 유미리나 이양지로 대표되는 재일조선인 ‘여성문학’의 범주에서도 다뤄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일본의 주류 문단에서도 재일조선인문학, 특히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를 폭넓게 조명할 분석적 틀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도 많은 연구를 참조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지만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 행위 전반을 포괄한 텍스트를 잠정적으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common-place of self-epic)’라고 명명하려고 한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하지만 이 명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기서사’라는 말은 여성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재일조선인들의 자기서사를 분석하면서 이한정은 박혜숙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자기서사’라는 말을 정리한다. “‘자기서사’는 ‘자서전’ 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의 삶—전반 생애 혹은 특정시점, 현재적 삶—속에서 고찰하는 것”이며, “재일조선인 여성의 자기서사의 대상은 ‘자기자신’이 누구인지

7 서아귀, 유라주 역, 『할머니들의 야간 중학교』, 오월의 봄, 2019.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の水書房, 2012)

8 미리내, 양지연 역, 조경희 감수, 『보통이 아닌 날들: 가족사진으로 보는 재일조선인, 피차 별부락, 아이누,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여성의 삶』, 사계절, 2019. (皇甫康子, 『家族写真をめぐる私たちの歴史: 在日朝鮮人, 被差別部落, アイヌ, 沖縄, 外国人女性』, 御茶の水書房, 2016)

를 ‘사실’로 일어났던 일을 전제로 말하는 자전적 에세이, 구술채록, 자전적 성격을 띠는 (사)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 한다고 쓴다.<sup>9</sup> 이러한 개념화는 제일조선여성의 다양한 글쓰기 형태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자기서사’라는 말은 제일조선여성이 문해능력을 욕망하고, 배우고,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술이나 증언을 듣고-쓰는 것을 가능하게 한 제일조선여성들(혹은 소수자 여성들)을 둘러싼 관계, 더 나아가 이러한 텍스트를 번역/자역하게 된 관계를 포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논문은 제일조선여성들의 문해교육 및 글쓰기의 욕망/표현/번역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포괄하여 ‘자기서사’에 ‘공통장’이라는 말을 붙여 부르려고 한다.

둘째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라는 명명에는 제일조선여성의 글쓰기를 둘러싼 관계를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때 ‘공통재’를 재생산 노동을 통해 재해석하는 실비아 페데리치의 논의를 빌려오려 한다.<sup>10</sup> 네그리와 하트는 과거의 ‘공유재(communs)’라는 용어를 ‘공통적인 것(the common)’으로 바꾸어, 비물질 노동이 중심이 되는 변화된 자본주의와 국가의 통제 및 규제와 대립하는 것으로서 쓴다. 그러나 페데리치는 『혁명의 영점』에서 이러한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가 재생산 노동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공유재의 정치를 살펴보고자”한다.<sup>11</sup> 이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 서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재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집합적 재생산을 꾸려 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주목”<sup>12</sup>하고 새로운 공통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제일조선여성의 글쓰기를 둘러싼 관계는 일본사회에서 비가시화되고 부블노동인 재생산 노동의 영역을 담당해 왔다. 페데리치가 “공유재화 commoning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공동의 주체

9 이한정, 앞의 글, 138-139쪽.

10 권범철,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제60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133-134쪽.

11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3, 237쪽.

12 권범철, 앞의 글, 140쪽.

common subject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듯이<sup>13</sup>, 본 논문은 그/녀들의 경험과 삶이 담긴 글쓰기 행위와 관계를 통해 자기서사 공통장의 잠재성을 모색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라는 명명은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 행위 및 텍스트를 특정한 문학사나 장르에 귀속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형태의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생산, 논의, 확산될 수 있는 ‘장소(place)’를 만들려는 고민을 담고 있다. 재일조선인문학, 그리고 재일조선여성문학과 글쓰기 행위는 ‘문학’ 안에서 ‘국민국가’ 안에서 ‘장소’를 갖지 못했다. 에드워드 랄프가 말하듯이,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사실 매우 밀접”하며,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sup>14</sup> 즉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애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소와의 관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한다는 것이다.<sup>15</sup>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라는 명명은 이러한 ‘장소’에 대한 천착을 통해, 특정 공동체나 민족, 인종, 장르에 귀속되지 않는 형태로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의 ‘장소’를 모색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가 외부로 접촉해 갈 수 있는 장소를 고민하려는 것이다.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연구에 대한 시론적인 본 논문은 구체적인 텍스트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 보다는 최근 출판 번역되고 있는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현황과 이러한 텍스트를 생산 유통시키는 공통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표는 2014년 무렵부터 일본에서 부상하고 최근 한국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와 문학의 현황을

---

13 실비아 페데리치, 앞의 책, 247쪽. 다소 니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김미정은 『움직이는 별자리들』(갈무리, 2019, 15-16쪽)에서 “여성을 정체성 이전에 함께 만들어갈 공통장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4 에드워드 랄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86쪽.

15 위의 책, 95쪽, 104쪽.



개괄하는 것이다. ‘트랜스 내셔널’이라는 틀 속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이 번역 소개되지만, 그 속에서도 재일조선여성의 문학이나 글쓰기 행위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을 질문하고, 이러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특성을 간략히 제시하려 한다.

두 번째 목표는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형성되기 위한 기반인 아시아 여성교류의 장이 언제부터 형성되었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특히 1970년대 중반 마츠이 야요리의 활동을 『아시아와 여성해방(アジアと女性解放)』(1977년 6월 창간)의 아시아 여성 교류에 한국의 활동이 끼친 영향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교류의 국민국가적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재일조선여성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다층적 위치(군위안부, 산업위안부, 근로정신대 등)는, 국민국가의 경계와는 별도로 ‘해방후 혹은 전후’의 일본사회 속 재일조선 여성의 삶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통해서 밝힌다.

마지막으로 2014년 이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출간되고, 한국에서 최근에 번역되는 상황이, 아시아의 미디어 순환과 출판자본주의의 영향 속에서 어떤 문제들과 부딪치는지 지적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 번역<sup>16</sup>으로 촉발된 K-문학 및 K-페미 붐과, 이와 대조적으로 식민지기 위안부 문제나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한 적은 관심, 이 둘 사이의 온도차 원인을 사유하기 위한 물음을 던진다.

즉 본 논문은 ‘국민국가’ 사이의 트랜스로서의 ‘트랜스 내셔널 문학’이 아니라 트랜스내셔널 문학 안에서 형성되어 온 공백을 문제화하려는 것이며, ‘여성문학’만이 아니라 ‘여성문학’이라는 장르적 구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글쓰기의 욕망, 행위, 형태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장소’를 마련하되 이러한 작품과 행위를 특정한 ‘공간’에 집체화하는 것을 피하고, 한국의 난민 여성문학 등 한국 내부의 마이너리티 문학과 어떤 접점을 찾고 확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다.

---

16 チョ・ナムジュ, 齋藤真理子 역, 『82年生まれ, キム・Wジヨン』, 筑摩書房, 2018.12.

## 2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 속 공백과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

### 2.1 ‘트랜스내셔널 문학’ 속 공백과 ‘여성문학’ 속 공백

최근 재일조선인문학은 빠른 속도로 번역되고 있다. 번역 범위도 시, 소설, 에세이, 잡지, 연구서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 이런 흐름은 국민국가의 경계에 있는 문학, 즉 트랜스내셔널 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다.

먼저 문학작품 번역에 초점을 맞춰보자. 재일조선인문학이 번역 소개되었던 초기에는 일본문학단편선이나 식민지기 일본어 작가를 소개하는 책에 함께 실리는 경우가 많았다. 부르는 용어도 재일동포문학, 재일디아스포라 문학 등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는 적극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중반에 번역된 『재일동포작가 단편선 (한림신서일본학총서 16)』(양석일 외, 이창역, 소화, 1996)은 ‘재일동포작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표적인 문학가들의 소설이나 시는 1980년대부터 드문드문 번역되었지만, 양석일의 소설은 영화화된 측면도 있어서인지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번역된다. 예를 들어 『달은 어디에 떠 있나1,2』(인간과예술사, 1994), 『피와뼀1,2』(김석희역, 자유포럼, 1998), 『밤을 걸고 1,2』(김성기 역, 태동출판사, 2001) 등을 들 수 있다.

김시중의 시는 2008년에 나온 선집 『경계의 시』(유숙자 역, 소화)를 시작으로, 2014년경부터 시집, 산문집, 대담록 등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니이가타』(곽형덕 역, 글누림, 2014), 『광주시편』(곽형덕 역, 푸른역사, 2014), 『조선과 일본에 살다』(윤여일 역, 돌베개, 2016), 『재일의 틈새에서』(윤여일 역, 돌베개, 2017), 『지평선』(곽형덕 역, 소명출판, 2018) 등이 번역되었다. 최근에는 창작과 비평사에서 『잃어버린 계절』(가게모토 츠요시·이진경 공역, 창비, 2019)과 『이카이노시집 계기음상 화석의 여름』(이진경·심아정·가게모토 츠요시·와다 요시히로 공역, 도서출판 b, 2019)이 번역되었다.

김석범의 소설이나 산문도 2015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듯하다. 『까마귀의 죽음』(김석희 역, 각, 2015(첫 번역은 김석희 역, 소나무, 1988)), 『1945년 여름』(김계자 역, 보고서, 2017) 『과거로부터의 행진』 상,하 (김학동 역, 보고서, 2018)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획기적인 사건은 『화산도』(김환기·김

학동 역, 보고서, 2015) 12권 전권이 번역된 것이다. 이로써 김석범 문학의 핵심을 일본어를 모르는 독자들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담집으로는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제주대학출판부, 2007)가 번역되어, 김시종과 김석범이라는 두 대작가의 삶을 조망하게 해준다. 재일조선인의 삶·문학·사상 전반을 볼 수 있는 잡지도 번역되었는데, 『진달래 가리온』(1~5권) (재일에스닉잡지연구회 역, 지식과교양, 2016)이 완역되었고,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는 『전후재일조선인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색인 1(1945.8-1969.12)』(박문사, 2018)을 출간했으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남기고 있다.

1차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문학, 대담, 잡지의 번역을 통해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재일조선인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sup>17</sup> 이처럼 재일조선인문학이 다양한 장르에 걸쳐 활발히 번역·소개되고 있는 만큼, 번역과 확산에 대한 현재적 의미와 방향성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태까지 이뤄진 재일조선인문학 번역에서 보완될 점으로 보이는 것은 재일조선여성문학이다. 물론 재일조선여성문학은 지속적으로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일본 문단에서 상을 받거나 인정받은 소수의 유명한 여성문인에 한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양지의 경우 『유희』(삼신각, 1989), 『해녀』(이상옥 역, 삼신각, 1993), 『꿈꾸는 모래알』(홍혜영 역, 다모아, 1995), 『돌의 소리』(삼신각, 1992), 『나비타령』(삼신각, 1989) 등이 번역되어 있다. 아쿠타가와 상을 받은 유미리는 『물가의 요람』(김난주 역, 고려원, 1998), 『가족시네마』(김난주 역, 민음사, 2000년. 이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년)를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소설, 수필, 방문기 등이 꾸준히 번역되고 있다.<sup>18</sup> 이런 흐름은 재일조선여성문학이 일

---

17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작성되고 있다. 「재일조선인 서클지 『진달래』 연구」(문지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등.

18 『평양의 여름휴가』(2012, 615), 『우에노 역공원출구』(2015, 기파랑), 『세상의 균열과 혼의 공백』(2002, 문학동네), 『남자』(문학사상사, 2000), 『물고기가 꿈 꿈』(열림원, 2001),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문학동네, 2006), 『루주』(열림원, 2001) 등 다수임.

본여성문학사의 일부나<sup>19</sup>, 한국여성문학사의 일부로 소개되는 경우<sup>20</sup>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깊다. 그러나 무명의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는 이중의 공백으로 남는다. 트랜스내셔널한 재일조선인문학 속 공백이자, 재일조선여성 문학 속 무명필자라는 공백으로.

이러한 공백들은 연구서에서도 나타난다. 재일조선인문학 연구 초창기에 3권으로 출간되어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한 『재일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1~3』(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제이앤씨, 2008)는 재일조선인문학의 시기 설명, 테마서술 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연규,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이양지, 원수일, 고사명, 유미리, 김학영 등 인물중심의 문학론이다. 재일조선여성문학 연구에서도 이양지, 유미리 등 스타 소설가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은 현재진행형이다.<sup>21</sup>

2018년에는 대학 소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시리즈 형태의 연구서 세 종류가 동시에 발간되었다. 『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박문사, 2018)은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잡지와 신문에 초점을 맞춘 뒤 기존 문학작품을 영상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비평을 추구한다.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1~5』(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 저, 소명출판, 2018)은 1권은 시, 2~3권은 소설, 4권은 평론, 5권은 연구논문이다. 연구서는 『민주조선』, 『진달래』, 『계림』, 『한양』, 『계간삼천리』, 『청구』, 『민도』, 『당에서 배를 저어라』 등 재일조선인 잡지를 분석하여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러한 연

19 이와부치 히로코·기타다 사치에, 이상복 외 역, 『처음 배우는 일본 여성 문학사 (근현대편)』, 어문학사, 2008.

20 유미리, 『한국시나리오결작선 084:가족시네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이처럼 『한국시나리오 결작선』이라는 시리즈 안에 유미리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저, 『한국문학과 여성(한국문학연구신서 2)』, 아세아문화사, 2000에서는 「재외한국인문학의 여성상」으로 분류되어 북한 여성, 연변여성 문학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21 박죽심, 「재일조선인 여성작가의 존재방식에 대한 연구—이양지와 유미리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73호, 중앙어문학회, 2018, 159-191쪽; 최효선, 『재일동포문학연구(1세작가 김달수의 문학과 생애)』, 문예림, 2002; 윤정화, 「재일한인작가 유미리 소설에 나타난 ‘장소성’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등.

구서의 성과 속에서도 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땅에서 배를 저어라』에 관한 고찰—‘재일’여성문예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재일조선인 자기서사의 문화지리』<sup>1,2</sup>(박광현·오태영 외 저, 역락, 2018)는 ‘자기서사’에 맞춰 조명한 점이 흥미롭다. 그 중 「여성으로서의 생애와 역사」(이한정)는 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 본 논문에도 큰 참조가 되었다. 2권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를 다룬 텍스트는 「가족 로망스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기획과 장소 상실」(오태영), 자기서사의 문제를 영상 텍스트로 확장시킨 「봉쇄된 목소리와 회수되는 여성의 자기서사」(허병식)가 있지만, 여성의 자기서사 텍스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

재일조선인문학은 한국문학으로도 일본문학으로도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무명의 여성 필자에 의해 창작되고 문학이란 장르로 분류되기 어려운 자기서사 공통장-텍스트는 공백으로 남았다. 이같은 공백이 문제적인 것은 자기서사 공통장-텍스트가 소개됨으로써 재일조선인문학 속에 무명이며 여성인 자들의 육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록-증언 아카이빙의 흐름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 2.2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연구: 지역, 협업, 신세타령의 객관화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라는 틀에서 보면,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뿐 아니라, 재일조선인문학 또한 두 네이션(일본과 한국)을 트랜스(trans, 횡단)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해는 재일조선인문학을 두 국민국가의 매개로 설정하고 국민국가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 되기 쉽다. 오히려 문제는 재일조선인문학이 번역될 때 번역-출판 프레임이 야기하는 비가시화된 영역이며,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도 이 영역에 있다.

재일조선인문학은 조선어와 일본어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조선어-일본어 사이의 갈등을 내재한 채 형성되었다. 재일조선인문학 속에는 한글 음가가 외국어처럼 표기된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머니(オモニ), 아버지(アボ

じ)를 들 수 있다. 즉 번역대상인 일본어 텍스트 내부에 이미 번역 불/가능한 조선어/한국어가 내포된 상태다. 그런데 일본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이라는 국민 국가를 기반으로 한 출판-자본 프레임을 통과하는 순간, 재일조선인문학 속의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번역된 한국어’로 비가시화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한 언어적 접근을 통해, 한국어도 일본어도 될 수 없는 두 언어 사이의 갈등을 담을 방법이 본격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언어로 쓰인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가 지닌 의미는 다시 한번 부각된다.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는 그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한풀이, 신세타령, 닛두리’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 글쓰기가 이뤄지는 공통장은 일본사회 속 마이너리티 사회 속의 재생산 노동이 지닌 경험과 삶을 비추며, 그/녀들의 글쓰기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구분할 수 없는 형태를 지닌다. 숙제, 구술, 잡문을 포괄한 탈-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무명의 잊힌(혹은 부재하는) 필자를 상징하고, 번역된 ‘조선어/한국어’가 포함된 일본어 텍스트와, 번역된 일본어가 포함된 한국어 텍스트를 포괄하여 접근할 때,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들이 꽤 다양하게 한국에 번역되고 있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어와 한국어 양쪽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가 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일조선인 3, 4세 및 일본인들이 한국문학 및 재일조선인 연구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한국인들이 일본문학 및 재일조선인문학 연구를 하면서, 양자가 협업할 수 있는 조건이 풍부하게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재일조선인문학과 연구서, 자료집, 문학 텍스트의 출판 및 번역에도 의미있는 변화들이 감지된다. 첫째로, 기존에 재일조선인문학 번역은 재일조선인에 의해서 이뤄지거나, 혹은 필자와 번역자의 명확한 구분 속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최근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간된 김시중의 시집 『잃어버린 계절』(2019)이나 『이카이노시집 계기음상 화석의 여름』(2019)등은 한국어 네이티브와 일본어 네이티브의 협동작업을 통해 이뤄졌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감적 화자-청자’<sup>22</sup>라는 번역-공통장이 형성되어 온 것은 최근 경향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운 용자에 의해 ‘自譯’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혜원은 자신의 저서를 ‘자역(自譯)’ 했다.<sup>23</sup> 그런데 이 책은 ‘자역’의 조건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 책의 일본어 판은 조선어/한국어로 창작되었고 일본문단에서 인정받지 않은 여성들의 자기 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다수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에 출판된 일본어본인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에는 조선어/한국어로 쓰인 텍스트나 구술을 일본어로 번역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2019년에 발행된 소명출판본에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조선어/한국어 텍스트였던 것을 원래로 되 돌린 부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송혜원의 ‘자역(自譯)’이라는 행위 속에는 재일조선인문학이 내재하고 있는 두 언어 사이의 갈등, 몇 층위의 번역행위가 응축되어 있다.

셋째로, 이렇게 볼 때,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조선어/한국어로 쓰 인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다수 포괄하고 있는 자료집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1』 및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2』<sup>24</sup>를 한국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된다. 자료집에는 일본어뿐 아니라 조선어/한국어로 창작된 텍스트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서, 자료집을 번역·출판하는 것은 저작권 및 출판 의 경계를 복잡하게 되묻는 것이 된다. 즉 이 책은 번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한국 의 재일조선여성문학 연구에 포괄되어야 하는 자료집이다.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서 중, 재일조선인여성의 글쓰기 욕 망/행위/관계에 주목한 것은 송연옥, 이한정, 송혜원의 연구서다. 먼저 송연옥 은 「재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에서, 구술사가 일본에 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을 60년대 말~70년대 초로 잡고 그 맥락 속에서 재일 조선인여성구술을 위치짓는다.<sup>25</sup> 모로사와 요코의 「시나노의 여자(信濃のおんあ

22 이흥섭, 번역공동체 있다 역, 「역자서문」, 『딸이 전하는 아버지의 역사』, 논형, 2018.

23 송혜원,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24 宋惠媛 편저,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1』 및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2』, 綠蔭書房, 2014.

25 송연옥, 「재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 『구술사연구』 제6권 2호, 구술사학회, 2015.12, 199-201쪽.



人)』(1969년), 야마자키 토모코(山崎朋子)의 『산다칸 8번 창부관, 저변 여성사 서설』(1972), 모리사키 카즈에(森崎和江)의 『카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1976)을 들고 있다. 이 흐름 속에 재일조선여성의 구술사 연구의 시작이랄 수 있는 『신세타령—재일조선여성의 반생(身世打鈴—在日朝鮮女性の半生)』(1972)을 놓는다.<sup>26</sup> 이처럼 재일조선여성의 구술은 1970년대 무렵부터 등장하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성장으로 저변 여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 「일본오랄히스토리학회(Japan Oral History Association)」가 창립된 것은 2003년이였다. 이 학회 창립 멤버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듯이, 송연옥은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구술작업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과 소수자 커뮤니티 속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억압 속에서, 재일조선여성들의 기억과 경험이 점차 지워져가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송연옥은 위안부나 재일여성의 구술에 대해서, 하타 이쿠히코처럼 “창녀의 신세타령”이라고 지칭하며 마치 객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치부하려는 담론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지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여성의 구술이 생성된 조건을 일본 구술사 맥락에서 뿐 아니라 재일조선인단체나 재일조선인에게 관심을 가진 일본인과의 공통장 속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세타령—재일조선여성의 반생(身世打鈴—在日朝鮮女性の半生)』(1972)을 엮은 것은 1971년 1월에 만들어진 <무궁화 회(むくげの会)><sup>27</sup>였다. 홈페이지에는 “조선의 문화, 역사, 풍속, 언어를 공부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서클”로 기관지 『무궁화 통신(むくげ通信)』을 발행하고 있고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한정은 ‘자기서사’라는 틀로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를 범주화하고, 특히 2014년경에 ‘재일여성’의 ‘자기서사’ 텍스트가 일본 출판시장에 부각되었다고 말한다.<sup>28</sup> 1970년대까지 재일여성은 “아직 스스로 자기서사의 출판물을

26 むくげの会, 『身世打鈴—在日朝鮮女性の半生』, 東都書房, 1972.

27 <http://www.ksyc.jp/mukuge/>

28 이한정, 앞의 글, 138쪽.



내고 있지 않”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최근 확산되었다는 것이다.<sup>29</sup> 이한정은 「재일조선인여성이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목록」<sup>30</sup> 및 「재일조선인 여성구술채록현황」<sup>31</sup>을 제시하고 독해를 시도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지분시(自分史)’의 영향도 언급하면서, 재일1세대(姜春子, 宋順伊, 申福心)과 2세대(金蒼生, 宗秋月, 金香都子), 그리고 제3세대(姜信子, 유미리)등이 지닌 자기서사의 차이와 특징을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문제의 전체상을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기서사 텍스트를 ‘신세타령’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나는 박화미의 견해를 빌어 자기서사의 객관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송연옥의 견해와 차이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송혜원이 쓰고 자역한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소명출판, 2019)를 살펴보자.<sup>32</sup> 이 책은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견해와 풍성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보여준다. 이 책은 문학사의 일반적 서술형식을 따르지만, 여성들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문학, 문학사’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또 하나의 연대기, 언어, 작가, 작품, 인쇄출판유통이 펼쳐진다. 재일조선인문학이 이해되어 온 클리셰(김달수를 중심에 놓은 재일조선인문학의 이해, 세대론의 구분, 일본어문학이란 인식들)를 깨뜨리면서도 ‘문학, 문학사’라는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 문학사’의 근거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전형성을 더 깊이 파열시키는 힘도 있다.

첫째로, 이 책은 1장의 제목 「원류로서의 ‘여성문학사’—문해·글쓰기·문학」이 보여주듯, “글에 접근조차 못한 채 생애를 마친 여성들, 쓸 시간과 장소를 결국 못 찾았던 여성들에 의한 쓰여지지 않았던 방대한 작품군”, 즉 “부재한 작품”을 재일조선인문학의 근원으로 놓는다. (송혜원/162쪽) 글도 모르고 쓸 장소와 시간도 없었던 그/녀/들의 삶이야말로 재일조선인문학의 근원이자 방대한 작품군

29 위의 글, 143쪽.

30 위의 글, 144-146쪽.

31 송연옥, 앞의 글, 210쪽.

32 신지영, 「부재로(가) 쓰다」, 『제5회연세한국학포럼』 발표, 2019년 8월 8일~9일. 송혜원의 책에 대한 설명은 이 발표문을 참고할 것. 위 부분의 논의는 이 논문과 일부 겹친다.

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이 책은 여성들이 문해교육을 받으면서 썼던 학교 숙제와 작문 일기 수기 등부터, 직접 채록한 구술과 증언들, 또한 신문잡지의 한 귀퉁이에 실린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쪽글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글을 다룬다. 이러한 재일조선여성의 아카이브가 가능했던 것은 20년간 재일조선인작가와 그 가족과 관계를 쌓으면서 구술을 들어온 필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재일조선인문학은 곧 일본어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전형화된 인식에서 벗어나, 두 언어 사이의 갈등 속에 있는 것으로 재일조선인문학의 언어를 위치시켰다. 재일조선인문학은 작가가 어느 세대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선어 창작과 일본어 창작이 분리되지 않은 채 늘 뗄 수 없는 관계로 공존한다. 그 과정을 따라가면 재일조선인여성의 글쓰기와 만나는 것이다.

넷째로 재일조선여성들이 쓴 글의 내용이나 언어가, 그녀들이 문해교육을 받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이나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과 그러한 틀에서 벗어난 순간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러한 그/녀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송혜원은 ‘조선’, ‘공화국’ 등 한국에서 쓰지 않는 언어를 노출시킨다. 이처럼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긍정 부정을 단순히 가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재일조선여성이 문해교육을 받고 글을 쓸 때 마주한 한계와 잠재성이 섞인 관계 전체다.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들은 문해교육을 받았다면 쓰여졌을 ‘부재한 텍스트’와 함께 구술, 증언, 일기, 잡문, 습작, 더 나아가 문해교육과정까지를 포함한다. 문해과정을 문학사 서술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자에서 소외되어 온 존재들이 글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 관계성과 함께 쓰여질 수 없었던 재일조선여성들의 삶이 지닌 잠재적 에너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서들은 일본에서 출판되었지만, ‘일본출판’으로만 환원되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여성이 자기서사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었던 공통장은 ‘일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재일조선인사회 및 그 사회를 둘러싼 마이너리티간의 관계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신세타령, 낫두리, 한풀이가 지닌 정동적 측면을 외면하지 않지만, 그러한 호명방식이 재생산하는 프레임—국민국가, 문학이란 장르, 민족적 한 등—을 문제화한다.

### 2.3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특성: 문해교육, 관계 속 듣고-쓰기, 부재한 작품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범위를 일본어 영역까지 확장하면 광범위하지만,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 중 한글이 사용되거나 한글로 번역된 것에 초점을 맞춰 그 특성을 파악해 보자. 먼저, 송혜원이 편집한 『在日朝鮮女性作品集 1, 2』<sup>33</sup>를 들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본에서 출판되었으나 한글로 쓰여진 텍스트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송혜원이 20년에 걸쳐 재일조선인 1세와 2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으면서 만들어 온 공통장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로 문해교육과정에서 제출한 숙제, 신문 한 귀퉁이의 쪽글, 일기, 편지 등 광범위한 글쓰기를 포괄한다. 송혜원은 서문에서 “폭넓은 일본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 일본의 상업출판에 버틸 수 있는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989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으로 주목받은 이양지의 「유희」 이전인 40년간이 재일조선여성문학의 불모지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성, 구식민지 출신자, 전후 일본의 ‘외국인’이라는 그녀들이 짊어져 온 ‘하중’은 그 언어생활, 교육, 표현행위, 사상 등 그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쳤”고 “초기 재일 조선 여성들의 라이팅에 얽혀 있는 곤란도,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된 복층적인 것”이었다고 한다.(재일여성자료2/ii쪽)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 많은 수가 ‘변소만이 쉴 수 있는 장소였어요’라고 쓴 종추월보다도, 더 앞 시대의 사람들로<sup>34</sup> 이 모든 곤란을 살아온 과정 및 표현물 자체가 재일여성문학 텍스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장은 1장 「문자의 세계로」와 10장 「산다」이다. 1장에서는 문해능력을 획득한 재일조선여성의 시와 수기가 수록되어 있어 문해의 욕망과 문해교육을 그녀들의 전후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장은 노년기에 다다른 1세 여성들의 작품으로 야간중학이나 문해학교에서 글을 배우면서 숙제로 제출한 작문들이다. 한센병에 걸려 시력과 손을 잃으면서도 구술필기로 시를 발표한 향산말

33 宋惠媛, 『在日朝鮮女性作品集 : 一九四五~八四. 1,2』, 綠蔭書房, 2014. 이하 이 자료집에서의 인용은 ‘재일여성자료1/쪽’ 또한 ‘재일여성자료2/쪽’으로 표기함.

34 宋惠媛 編, 「解説」, 『在日朝鮮女性作品集 1—一九四五~八四 (在日朝鮮人資料叢書9)』, 綠蔭書房, 2014, iii頁. 번역은 필자이며 이하 본 논문의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함.

자(香山末子)의 작품도 주목할만하다. (재일여성자료1/xxiv-xxvi쪽)

둘째로, 재일여성들의 글에, 문해교육을 받은 조직, 단체, 학교의 사상—특히 분단상황이 야기한 총련과 민단의 분열—이 그대로 침투해 있음을 노출시킨다. “이데올로기 색이 농후한 문장이어도 굳이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국에서 고생하면서도 늙름하게 열심히 살았던 여성들, 이라는 무색투명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에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재일 조선 여성들의 삶의 리얼리티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재일여성자료1/iii-iiii쪽) 이처럼 여성들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여성들을 둘러싼 관계—조직, 학교, 가정 등—와 긴밀히 관련된다. “문해교육을 받았는가 여부뿐 아니라, 어떤 언어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배우는가라는 문제는 재일조선여성들의 삶의 방식, 사상, 귀속의식의 방향성에 결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재일여성자료1/v쪽) 그러나 한계처럼 보이는 이러한 특수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를 배우는 것과 그 자체가 사상형성이나 행위 수행을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문자 획득행위의 보편적 본질을 질문하게 한다.(재일여성자료1/v쪽)

이와 관련된 장은 2장 「동포들과 함께」다. “재일민족조직과 깊이 관련되어 민족 공동체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이 쓴 작품군”으로 모두 “조련-민단-총련과 연계를 한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주변” 여성들의 글을 모았다. 3장인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와 4장인 「학교 속의 소녀들」도 넓은 의미에서 문해교육이 여성의 글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있는 장이다. 3장에는 일본학교나 조선학교를 졸업한 재일2세의 작품들이, 4장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작문이 실려 있다. 4장의 경우 조련-민단-총련 조직에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작품이 주종을 이룬다.(재일여성자료1/xxiv-xxv쪽)

셋째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 속에 가족 관계 및 갈등이 반영된 글이 있다. 관련되는 장은 7장 「아버지에게」, 8장 「아버지」, 9장 「어머니」이다. 8장에서는 집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밖에서는 소수자인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이 드러나 있고, 9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갈등을 포괄하여 다양한 1세 재일 여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가족관계가 반영된 자기서사 공통장에는 겹겹이 쌓인 듣고-쓰는 관계가 있다.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고 듣고 쓰며, 때로는 갈등하고 넘어선다. 이처럼 자기서사 공통장 속에 연쇄적으로 형성된 듣고-쓰기의 공통장은,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라진 시대의 증언방식을 모색할 때 힌트가 된다.

넷째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자기서사’에 머물지 않고 공통장을 만들어내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6장인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에는 1948년에 정점에 올랐던 민족교육투쟁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전개한 다양한 활동을 담은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다섯째로, 자료집에서는 1세, 2세, 3세라는 세대명칭을 사용하지만, 남편을 따라 도항·밀항을 반복해야 했던 이동 잦은 재일여성의 삶을 고려하여, 이러한 구분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5장 「고향과 조국과 일본 사이」의 수록 작품들은, 고향과 조국이 어긋나 버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송혜원의 자료집에 나타난 문해교육과정을 포괄한 폭넓은 텍스트 선정, 문해교육을 받은 장소(조직, 학교, 가정 등) 자기서사 공통장 내부에 연쇄적으로 생기는 듣고-쓰기, 이러한 세가지 특성은 다른 자료집이나 텍스트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자기서사 텍스트가 생성될 수 있었던 공통장의 특성과 변화를 함께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봉선화, 재일한국인 여성들의 기억』(선인, 2018/ 일본어판은 2015)을 보자. 첫째로 이 책은 수년간 『봉선화』라는 잡지를 축으로 맺어진 공통장을 기반으로 한다. 1991년 봄에 동인지 『봉선화』가 창간된 이후 27호까지 발간한 600여편 중 40편을 골라 담은 것이라고 쓰고 있다.<sup>35</sup> 목차가 시기별로 나뉘어져 있듯<sup>36</sup>, 재일여성의 세대간 차이, ‘하프’가 아니라 ‘더블’이라고 부르는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재일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재일조선여성 3세의 한국체험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조순화의 「재일 3세로 태어나」와 야마시타 영애의 「더블만세」가 대표적이다. “한국을 외국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한 발짝의 진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이나(봉선화/43쪽), 자신의 정체성을 ‘더블’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봉선화/68쪽)등이 언급되어 있다.

---

35 오문자·조영순, 최순애 역, 「후기」 『봉선화, 재일한국인 여성들의 기억 (담장 제6권)』, 선인, 2018, 237쪽. 이하 이 책의 인용은 ‘봉선화/쪽’으로 표기.

36 1991년~1994년까지 / 1995년~2000년 / 2001년~2005 / 2006~2013 으로 분류되어 있음.

둘째로 에세이를 실은 젊은 세대가 많아, 문해능력은 있지만 한국어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시즈코는 「우리말에 대한 다짐」에서 “난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일본 교육을 받은 탓에 모국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만, 나와 같은 처지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봉선화/14쪽)라고 한다.

셋째로 그/녀들이 글을 쓰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준 공통장의 변화도 이 두 드러진다. 김명미는 「멜라니여, 안녕」에서 도금공장에서 남자들과 함께 일하며 학교를 다니던 소녀의 이야기나 인쇄공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고 북한으로 간 마을오빠 이야기를 쓴다.(봉선화/18쪽) 주수자는 「승냥」에서 고생하면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머니가 살아온 애달픈 삶의 전철을 밟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쩐지 조선여자의 기운이 내 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다”(봉선화/49쪽)라고 쓴다.

넷째로, 자기서사 공통장이 세대를 넘어선 ‘듣고-쓰기’의 장으로 나타나는 글도 있다. 신민자는 「김동을 아버지를 찾아뵙고」에서 강제동원 당사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봉선화/37쪽), 정리혜자는 「BC급 전범이었던 아버지」에서 전후까지 이어진 사죄와 보상 요구 활동을 듣고 보고 기록한다(봉선화/85). 하타케 후미요는 재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본여성 보호소인 나자레원을 방문한 후기를 적고 있다(봉선화/166쪽)

마지막으로 다룰 텍스트로는 1차 텍스트를 편집하여 엮거나 일본어 에세이를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와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서아귀의 『할머니들의 야간중학교』(오월의 봄, 2019/일본어는 2012년)<sup>37</sup>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동오사카에서 1990년대부터 전개된 공립야간중학교 운동을 통해 재일조선인 1세들의 문해교육과정, 지역 차원의 재일조선인 여성의 주체화 운동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한다.(야간중학/13-14쪽)

---

37 서아귀, 유라주 역, 『할머니들의 야간중학교』 오월의 봄, 2019. 일본어본은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の水書房, 2012. 이하 인용은 ‘야간중학/쪽’으로 표시.

이 연구서에는 구술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저자인 서아귀의 정체성과도 관련된다. 서아귀는 “1세 여성은 인생선배로서 이야기를 들려 주”었기 때문에 동포여성이면서 연구자이면서 애엄마라는 위치에서 때로 친근함을 때로 괴리감을 느꼈으나 이 모든 것이 저술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쓴다.(야간중학/73쪽)

이처럼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그것이 형성될 수 있었던 공통장에 대한 질문이 된다. 또한 이 공통장의 모습은 재일조선여성이라는 정체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구자 활동가 번역가 사이의 협업을 통하여, 그리고 재일의 2세나 3세의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를 통하여, 그 모습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 3 자기서사 공통장의 모색: 아시아의 마이너리티 여성 사이/안의 관계

#### 3.1 ‘탈식민주의/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유입과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문학작품뿐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여성의 욕망, 표현, 관계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비가시화된 재생산 노동의 영역에 있는 재일조선여성의 경험, 표현,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특히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여성의 증언, 구술, 다양한 잡글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에서 확산된 증언, 구술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문학동네, 2015년)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증언과 구술을 문학과 관련시킨 작품이 주목을 끌었다.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번역 소개되는 경향은 이러한 전지구적 변화와 연동한다.

구술과 증언에 대한 관심은 식민주의, 아시아의 뜨거운 ‘냉전’, 분단, 독재 등을 통과해 온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띈다. 1975년 배봉기 할머니,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에서 시작된 증언·구술 작업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1~5)』(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이 2019년 개정판으로 출간되었고, 최근엔 서울

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의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1,2』(푸른역사, 2018년)가 지도, 사진 등 새로 발굴한 자료를 넣어 간행되었다. 미군부대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도 시도되고 있는데, 젊은 연구자와 예술가가 힘을 모아 자비출판한 『평택기지촌여성재현』(이경빈, 장영민, 지니, 이은진, 최윤선, 전민주/ 디페랑, 2018년 12월 15일)은 증언집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제주 4.3의 트라우마를 미술치료로 풀어낸 『제주 4.3 생존자의 트라우마 그리고 미술치료』(김유경·김인근, 학지사, 2014년)도 흥미롭다. ‘현재’를 기록하는 행위도 세월호진상규명운동을 둘러싼 기록물<sup>38</sup>들과 「304 낭독회」 활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투운동과 함께 여성들의 증언·기록이 갖는 함의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증언·구술 속에서도 재일조선여성에게 의해 창작된 자기 서사 공통장 텍스트들은 오랫동안 소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탈식민지 이론이 어떠한 맥락에서 수용되었는가를 되짚어보게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는 탈식민지 이론이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postcolonialism’의 번역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경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로서는 두 가지 ‘포스트’ 사이의 긴장이 어디까지나 주어진 역사적 조건의 부산물”인데, 왜냐하면 “긴장이 발생하는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탈식민화되었지만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는 비서구 세계”이기 때문이다.<sup>39</sup> 따라서 한국에서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나 ‘후기식민주의’라는 번역어 보다 ‘탈식민주의’라는 말로 번역되고 정착되었는데 이는 (재/신) 식민화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은 번역어다.<sup>40</sup> 윤대석 또한 “새로운 식민주의 전략에 대한 유효한 저항으로 ‘탈식민주의’를 배치하는 것은 포스트콜로니얼 이론/비평을, 그것이 계승/극복하고자 하는 제 3세

38 진실의힘세월호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2016; 416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글, 김보통 그림,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비, 201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생각의 길, 2014 등이 있다.

39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한길사, 2011, 30쪽.

40 위의 책, 32쪽.



계론과의 연속성에서 이해”하게 하며, 탈식민주의라는 번역어는 주변부에 위치하는 지식인들이 “서구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에 대해 가지는 반감과 우려의 표시”이자, “그것을 '주체적으로' 전유하려는 노력의 표시”라고 말한다.<sup>41</sup>

한편 황호덕은 ‘postcolonialism’에 대한 번역어로 ‘탈식민주의’ 만큼이나 ‘후기 식민주의/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란 번역어가 많이 활용되었다고 쓰고 있다. ‘탈식민주의’라는 번역어는 “근대(국민국가/식민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탈식민화(decolonization)’이라는 의제를 뚜렷이 한 반면, ‘후기 식민주의 혹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번역어는 저항과 협력의 비식별적 영역이나 민족/계급/젠더적 불평등의 복잡한 위계 등 식민지적 삶이 지닌 양가성의 영역을 의제화했다는 것이다.<sup>42</sup> 황호덕은 postcolonialism 번역과 수용 속에, 서발턴 재현의 논의나 젠더적 위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간략히 언급하지만, 아시아 여성의 글쓰기 행위 전체를 다룰 만한 가시적인 흐름에 대한 언급은 적다.

제3세계 페미니즘 혹은 탈식민 페미니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제3세계 페미니즘(the third world feminism)’이란 기존의 백인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을 “구식민지종주국의, 백인의, 민족적 다수자의, 특히 중산계급의 여성들의 페미니즘, 한마디로 제국의 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제기된 논의이다.<sup>43</sup>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서발턴의 말을 듣지 못하는 담론장에 일격을 가했던 스피박의 문제제기는 1990년대 한국사회의 식민지기 및 마이너리티 연구에도 자극이 되었다. 스피박의 「Can the Subaltern Speak?」가 발표된 것은 1983년이었고<sup>44</sup>, 한국에는 1988년 『세계사상』에 실린 뒤 『포스트식민 이성비판』에 게재된다.<sup>45</sup> 이후 컬럼비아 대학의 「여성과 젠더 연구소(Institute

41 윤대석, 「한국에서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식민지국민문학론』, 2006년, 63쪽.

42 황호덕, 「탈식민주의인가, 후기식민주의인가」, 『상허학보』 제51집, 상허학회, 2017.10, 315-357쪽

43 오카마리, 이재봉·사이키 카쓰히로 역, 「제3세계 페미니즘과 서발턴」, 『코기토』 제73호, 2013.2, 602쪽.

44 태혜숙, 「웁긴이 해제」,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513쪽.

for Research on Women and Gender)가 주관한 학술대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의 기록을 담은 로절린드 모리스 편저의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논의를 심화시켰다.<sup>46</sup>

이처럼 한국에는 1990년대 초부터 제3세계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나 서발턴 이론이 유입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여성들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제3세계 페미니즘의 문제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친연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시아 여성과의 교류와 연대는, 여성 노동 측면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sup>47</sup>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서야 활성화되고 있다. postcolonialism 뿐 아니라, 제3세계 페미니즘 이론이 한국에 수용될 때에도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확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서구성과 남성성을 비판할 때조차 사라지지 않는 ‘내재화한 식민주의적 무의식’일지도 모른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에서는 식민자의 무의식으로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혹은 ‘전후’에 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주어졌던 일본과, ‘해방후’에도 백색테러와 내전 독재정치에 휘말렸던 구식민지의 상황적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서사 공통장의 모색일 것이다.

### 3.2 아시아 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의 실험과 한계

---

45 위의 책, 531쪽. “나는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논의가 한참이던 때 왜 영문학을 공부하며 어떻게 작품들을 읽어야 할지, 또 박사학위 논문의 틀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방향하며 탐색하던 중에 스피박 교수의 첫 저서 『다른 세상에서』(1987)를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 책은 내가 쓸 논문의 주제와 틀을 잡는 데 주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고, 그 후 나는 1988년의 에세이를 번역해 『세계사상』(1988)에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46 위의 책, 11-12쪽.

47 박진영, 「여성노동운동의 아시아 연대」 『페미니즘 연구』 제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4, 219-229쪽.

아시아 여성들의 증언, 구술, 자기서사에 대한 아시아 여성 활동가 및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대활동, 즉 ‘자기서사 공통장’의 형성활동은 문학 이외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이른시기부터 이뤄져 왔다. 이러한 활동들이 가시화된 것은 2000년 12월에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대표적이지만, 연대의 흐름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뤄졌던 ‘장소’는 일본이지만, 이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단일국가적 맥락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공통장의 형성을 볼 수 있다.<sup>48</sup>

1970년대는 “베트남 전쟁반대 운동의 고양, 미국과 중국의 갑작스런 접근, 한반도의 남북 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동아시아 냉전 구조가 변화할 예감이 있던 시기”였고, “고도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라는 경제적인 여유도 작용하여, 일본 안에서 “저변 여성사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었다.<sup>49</sup> 1970년대 중후반부터 아시아 여성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진 인물로 마츠이 야요리를 들 수 있다.<sup>50</sup> 마츠이 야요리는 1970년대에 미국의 우먼리브 사상을 접한 뒤 아시아와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한다. 그의 활동궤적을 따라가면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아시아의 여성’을 화두로 관계를 맺는 모습이 포착된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공통장 속에는 국가 간 여성 연대라는 명명법 아래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는 제일조선여성과 같은 여성 내부의 마이너리티의 상황, ‘국가 간 연대’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지점, 구제국 일본과 구식민지 조선 사이의 위계 등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자기서사 공통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점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아시아 여성 연대 공통장의 형성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첫 번째 사건은, 1975년 6월 멕시코시티에서 처음 열린 「국제여성의 해 세계대회」이다. 이 대회를 시작

48 한국의 아시아 여성 연대의 계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1970년대의 두드러진 일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돌리고자 한다.

49 송연옥, 「제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 『구술사연구』 제6권 2호, 구술사학회, 2015.1, 209쪽.

50 마츠이 야요리의 설명은 이 사이트를 참조함. 「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http://jp.ajwrc.org/about/outline/yayorimatsui>

으로 10월 베를린에서는 세계여성대회가, 1995년 9월 베이징에서는 제4차 세계 여성대회가 열린다.<sup>51</sup> 아시아 여성에 대한 마츠이 야요리의 초창기 화두를 담고 있는 책인 『여성해방이란 무엇인가(女性解放とは何か)』<sup>52</sup>에는 첫 「국제여성의 해 세계대회」에 대한 리뷰가 있다.

마츠이 야요리의 이 책에는 ‘일본여성’이라는 입장에서 전개하는 활동과 함께 그 입장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공존한다. 일본과 아시아라는 두 축에 포섭되지 않는 아시아 여성 내부의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천착은 이러한 입장에 의한 것이다.<sup>53</sup> 마찬가지로, 마츠이에게 서구의 페미니즘과 아시아의 페미니즘의 위계(그리고 연쇄하는 페미니즘 내부의 위계들)가 드러난 멕시코시티 여성회의는 선불리 아시아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말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다. 제 3세계 여성의 빈곤은 “세계 133개국의 여성들이 눈부신 의상과 훌륭한 연설이 진행되는 회의 장소”와 대비되었고, 우먼리브로 대표되는 서구페미니즘 내부에 신식민주의적 요소가 있음을 마츠이는 직시하는 한편, 회의장이 갖고 있는 발언장으로서의 역할을 긍정하기도 한다.(마츠이/184쪽) 이는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와도 연결되는 것이었고, “만약 회의가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열렸다고 한다면 필경 일본이 공격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고 반일 감정이 폭발했을 것”이라고 자각하게 된다.(마츠이/185-186쪽)

흥미로운 것은 『여성해방이란 무엇인가』가 1981년에 한국에서 재일조선인에 의해서 번역출판되었다는 점이다.<sup>54</sup> 번역자는 1955년 나고야에 태어나 세이

51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여성의 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289&cid=40942&categoryId=31637>

52 松井やより, 『女性解放とは何か』, 未来社, 1975年.

53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호소한다」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3주간 방문하면서 만난 여성들에 대해 적는다.(마츠이/69쪽) 베트남에서는 전시성폭력에 의한 임신을 폭로하며, ‘현대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베트남 감옥에서 여성 정치범들이 당하는 성고문을 보도한다.(마츠이/79쪽) 방콕에서는 경제원조의 이름으로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는 일본기업을 고발하고(마츠이/77쪽) 한국에서는 기생관광을 성침략이자 식민지배의 반복이라고 비판한다(마츠이/83쪽).

54 마츠이 야요리, 김혜영 역, 『무엇이 여성해방인가?』 백산서당, 1981. 이 번역본에 대해서 알려준 이지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하 이 책의 인용은 ‘마츠이/쪽’으로 표기.

와 여자대학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재일동포 인권운동에 종사하는 보육원 교사라고 쓰여 있다. 1970년대 한일간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활동을 뒷받침했던 사람들 속에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77년 3월 준비호를 내고 6월에 창간한 『아시아와 여성해방(アジアと女性解放)』이란 공통장으로 이어진다.<sup>55</sup> 이 잡지는 아시아 각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자기서사 공통장의 아시아적 확장성을 실험했다고 할 수 있다. 창간호 특집은 “한국민주화 투쟁의 여자들”이고 사진은 “판결에 항의하는 민주화 구국 선언 사건 피고와 그 가족들(1977년 3월 22일)”이다. 창간호의 권두언의 성격을 띤 「우리들은 한국의 여자들의 싸움을 지지한다」라는 글에는 창간호 준비호에 실은 「우리들의 선언」<sup>56</sup> 일부가 전재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 저항에 나서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짓히고 싶다”는 바람이 잡지에 담겨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한국의 싸우는 여성들에게 지지를 보낸다.<sup>57</sup>

지금 한국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남자들만이 아님을 우리들은 조금씩 알았습니다. 여자 학생들은 '한 민족으로서의 생존과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향유 할 수 없는 이 암흑의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다'(1974년 10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선언)고 일어섰습니다. (...) 인천의 방적 공장의 여성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에 저항하여 단식투쟁으로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버려진 몸으로 싸워냈습니다. 지금 한국 여성들의 싸움은 풀뿌리 여성들에 의해 착실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것은 우리 일본 여자에게는 일본의 권력에 더욱 정면으

---

55 아시아의여자들회(アジアの女たちの会), 『아시아와 여성해방(アジアと女性解放)』 창간호, 1997.3.

56 「우리들의 선언 — 『아시아와 여성해방』, 창간호 준비호로 1977년 3월에 발간됨.

57 아시아여자들의 회(『아시아와 여성해방』 편집 그룹), 「우리들은 한국의 여자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아시아와 여성해방(アジアと女性解放)』 창간호, 아시아의여자들회(アジアの女たちの会), 1977.6, 2쪽. 이후 이 창간호에서의 인용은 ‘여성해방77.3/쪽’으로 표시.

로부터 대항해야 한다는 엄격한 질문이 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억압과 빈곤에 타격을 입은 아시아를 비롯한 제 3세계의 여성들에게는 강력한 격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 제국(일본도)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해서는, 타국의 여성들의 기아 위에 구축된 '윤택함'을 묻는 날카로운 고발이 될 것입니다.

1977년 6월 14일 아시아여자들의 회(「아시아와 여성해방」 편집 그룹)

이 권두언에는 한국여성과 일본여성이라는 국가간 경계가 확고하지만, 한국의 여성노동자, 싸우는 여성, 민주화 투쟁을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 등 보다 구체적인 여성 소수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李愚眞의 「민주구국선언사건피고」(3쪽), 가토 마리(加藤真理)의 「김지하의 어머니는 말한다」(6쪽), 4월X일 서울발이라고 쓰인 「어느 학생의 어머니로부터」(7쪽), 「양심범과 그 가족들의 모임 선언」(7쪽), 「다큐먼트—여자는 싸우고 있다, 대학에서, 공장에서, 언론에서」(10-11쪽) 강순희의 「처형된 남편을 생각한다」(13쪽), 「KCIA(한국중앙정보부)의 성고문을 받은 권말자씨」(15쪽)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여성과 일본여성의 연대라는 트랜스내셔널한 프레임에서는, 국민국가에 속하지 않는 주체가 오히려 비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나 창간호에 「재일한국여성억압에 대항하여」(14쪽)가 여러 사람들이 연대를 보내는 글로 엮여져 있어 미약하나마 트랜스내셔널한 프레임 내부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와 여성해방』은 여러 갈등과 위계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층위의 여성의 글을 게재한 자기서사 공통장이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통장이 내부의 소그룹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아시아 및 한국에 대한 지식을 주고 받거나,<sup>58</sup> 다양한 강좌와 스터디 그룹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잡지에 실린 강좌 예고, 테마별 연구모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59</sup>

『아시아와 여성해방』은 1992년 11월에 21호로 종간하지만 이후에도 〈여

---

58 임전혜, 「일한 여성 세미나 강연 1976년 6월, 식민지 정책과 일본인 여성」 16쪽 및 「한국여성이 투쟁한 백년의 역사」 21쪽 및 「한국과 한국여성을 알기 위해—자료소개」, 24쪽.

성국제전범법정)을 비롯한 다채로운 아시아 연대회의 결성, 일본 내 여성 단체<sup>60</sup>나 아시아여성자료관의 결성<sup>61</sup> 등으로 지속된다. 이러한 마츠이 야요리의 활동은 ‘초국적 아시아 여성 연대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sup>62</sup>

마츠이 야요리가 주도한 아시아 여성 교류는 단일한 국민국가로 환원될 수 없으며 여성 내부의 마이너리티와 연결되려는 여러 시도들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페미니즘과 아시아의 페미니즘 사이에 있는 시야나 위치의 차이는 간과하기 어렵다. 이 차이는 1975년 8월 제 2차 〈아시아인회의〉에서 만난 싱가포르 청년이 무토 이치요에게 “도쿄에 와서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했던 순간에서 확인된다.<sup>63</sup> 분단된 아시아가 다시 만난 것이 그 분단을 초래한 정치경제권력의 수도였다는 아이러니는 1970년대를 둘러싼 아시아 여성연대의 장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대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활동가인 마츠이 야요리의 시야에서는 ‘아시아’가 보였지만, 해방 후 백색테러, 내전, 독재를 겪으면서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열중하고 있던 한국에서 다른 아시아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활동이나 재일조선여성에 대한 인식이 활발히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여성노동운동이 여성노동운동의 이름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CAW(Committee for Asian Women, CAW)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1987년 이전에는 독자적 여성노동조직이 없었고 정부의 감시로

59 츠루미 요시아키(鶴見良行)의 「여자대학 4월 강좌 제1회: 아시아와의 만나는 방법」이 실려 있고, 「편집후기」옆에는 「여자대학—아시아와 여성해방」(제1기 4월~7월) 안내와, 9월부터 2기가 시작된다는 안내가 있고, 「아시아 여자들의 회 테마별 그룹」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연구, 국적법개정, 해방과 미학, 경제침략, 성침략, 인권 정치범, 연대활동, 기관지 담당, 자료 수집 등의 테마가 열거되어 있다.

60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 (VAWW-NEt Japan)

61 「아시아여성자료센터(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http://jp.ajwrc.org/about/outline/yay-orimatsui>

62 강가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등을 참조.

63 미치바 지카노부,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에서 ‘아시아’에 대한 시선의 부상」,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2 (1960-1970년대)』, 현실문화, 2009, 112쪽.



외국으로 갈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외국과의 연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진다.<sup>64</sup> 한국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걸쳐 직접적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왔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다양한 활동 사례와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고, 현재는 동남아시아 등의 여성운동과의 동등한 교류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는 점에서 연대 안에서도 여러 갈등과 위계가 존재한다.<sup>65</sup> 제국의 위치에서는 아시아가 보이지만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를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마츠이 야요리가 열어젖힌 아시아 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에도 다시금 질문되어야 할 문제이며, 한국내부의 흐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트랜스 내셔널한 관점에서 한일간의 여성 연대, 혹은 아시아 여러 지역의 연대를 모색할 때, 오히려 비가시화되는 존재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재일조선 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에서 명확했다. 마츠이 야요리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아시아 여성의 연대는 재일조선인을 비롯하여 여성들 내부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위계에 자각적이지만, 아시아 여성 내부의 갈등하는 관계를 깊이 파고들진 않으며 재일조선여성의 문제는 충분히 조망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성교류의 장은 이후 위안부를 둘러싼 한일 교류 및 현재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기반이 되지만, 각 지역이나 국가간 연결 뿐 아니라 마이너리티 여성 내부의 관계를 보다 깊이 묻기 위해서는 당대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봐야 한다.

### 3.3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와 내재적 공통장: 군위안부, 기업위안부, 근로정신대

트랜스내셔널이라는 틀로는 보이지 않는 재일조선여성의 내재적 연결과 갈등은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 중 재일조선여성 1세의 다양한 구술기록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구술 텍스트에는 현재 분리해서 생각하는 식민지기부터

64 박진영, 앞의 글, 223-224쪽.

65 위의 글, 224-226쪽.



해방기까지의 여성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 있어서 소수자 여성 사이의 관계를 깊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정신대로 1944년 5월 아이치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되어 비행기 부품도본을 알루미늄판에 그리는 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살고 계신 박해옥님은, ‘근로정신대’에 특화된 구슬집에서 「우리 근로정신대는 그러니까 위안부가 아니어요」라고 말한다.

국민학교에서 보냈어요. 각 초등학교에서. 우리 정신대원들은. 그러니까 위안부가 아니어요. (테이블을 두드리고 목소리가 커지며) 위안부들은 정신대를 붙일 수가 없어요. 종군위안부지, 우리는 근로정신대라는 것이 그것밖에 정신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로정신대. 정신대 한문이 몸을 바치라는 것인데, 천황폐하에 몸을 바쳐서 일해라, 그 뜻이예요. 그러는데 그거를 엄한 데다 붙여가지고.<sup>66</sup>

강제동원되고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의 형태를 섬세하게 구별하는 것은, 이 폭력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뿌리깊은 가부장제는 위안부 당사자를 지역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국민국가 담론으로 포섭함으로써, 그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당사자를 분열시키는 외적 요소다.

또한 재일조선여성 1세의 생애사 구술 속에서 여성들이 마주한 여러 상황들은 연결되거나 겹쳐지는 경우가 있다. 배봉기에 한정해서 보면더라도, 근로정신대가 위안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오세중은 배봉기가 “‘가네코’라는 이름의 조선인 남성을 따라 부산으로 향”한 뒤, “‘곤도’라고 하는 일본인 남성에게 넘겨진 후 29세 무렵 ‘여자 정신대’에 들어갔다. 29세 무렵이다. 정신대라는 것은 종군간호부와 심부름, 군대청소, 취사, 군수공장에서 노동 등을 위해 모집된 여자들이다. 그런데 정신대 들어간 조선인 여성 상당수는 보내진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

66 「우리 근로정신대는 그러니까 위안부가 아니어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145쪽.

동원되었다”<sup>67</sup>고 쓴다. 배봉기의 구술을 통해 작성된 『빨간 기와집』에는 “기생들은 1943년 5월부터 여자근로보국대로 편입되었고, 1944년 8월부터는 여자정신대로 군수공장에 동원되었다”고 쓰여 있어, 기생들이나 조선요리집의 여성들이 다시 근로정신대가 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8</sup>

위안부도 지역이나 관리 주체에 따라 형태가 여러 가지였다. 군위안부도 있었지만, 산업위안부도 있었다. 1910~20년경 조선인 집단 거주지구에서 형성된 조선요리집에 집안 빛에 팔려오거나 속아서 온 젊은 여성은 식사대접 뿐 아니라 매춘에 이용되었고, 그 조선요리집은 ‘조선유곽’, ‘반카페’, ‘조선빠’, ‘빠야’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sup>69</sup> 1942년 이후 탄광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을 상대로 하는 산업위안소가 탄광 주변으로 만들어지자,<sup>70</sup> 그녀들은 다시 산업위안소에 배치되고 정부와 기업에 의해 관리되었다.<sup>71</sup> 그 외에도 강제동원당한 남편을 찾거나 쫓아 온 여성, 1920년대에 토지를 빼앗기고 날뎠던 노동자로 도향한 여성 등 여러 형태의 삶이 있었다.

짐을 양태의 측면 및 시간적 연속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자.

첫째로, 1920년대부터 도향한 여성들의 삶과 근로정신대 여성의 삶과 위안부의 삶과 전후 재일여성의 삶이 연결되어 가는 측면을 보여주는 구술자료로 『백만인의 신세타령—조선인강제연행 강제노동의 한』<sup>72</sup>이 있다. 이 구술자료집은

67 오세종, 손지연 역,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2019, 266쪽.

68 가와다 후미코, 오근영 역, 『빨간 기와집』, 꿈교출판사, 2014, 65쪽.

69 < 朝鮮料理店・産業「慰安婦」と朝鮮の女性たち～埋もれた記憶に光を～ >, 高麗博物館, 2017年企画展, 2017年8月30日～12月28日, 2쪽. 박물관의 전시자료와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님의 논문 및 보고문을 보내주신 도쿄의 「고려박물관」 오바 사요코(大場小夜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70 樋口雄一「日本国内の朝鮮料理店と産業慰安婦」『季刊 戦争責任研究』第90号, 2018年夏号, 29頁; 樋口雄一「朝鮮料理店女性と産業慰安婦」『海峡』1992年10月, 16頁

71 ‘산업위안부’라는 말은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가 「朝鮮料理店女性と産業慰安婦」(『海峡』1992年10月)에서 쓴 말로 당대에 사용되던 말은 아니다. 이 말은 징용된 조선인의 위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일본기업이 관여했다는 함의를 표현한 말로 이 글에서도 ‘산업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72 「百万人の身世打鈴」編集委員, 『百万人の身世打鈴(シンセタリヨン)—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恨(ハン)」』, 東方出版, 1999.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신세타령/쪽’으로 표기.

강제동원된 남녀 109명의 증언을 모은 것으로, 강제징용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와 있다. 특히 2장 3절에 「남자는 쓸데 없어—어머니들의 활약」이라는 장을 두어 여성들의 구술을 담았고, 재일조선여성의 삶과 제주도 여성의 삶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구술도 다수 있다.

이 구술 작업에 참여한 가야누마 노리코에 따르면 구술은 1993년에 시작하여 4년간 청취조사를 한 뒤 12월에 출판되었다고 한다. 이 구술집은 ‘강제동원’이란 테마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제동원의 범위를 한국병합 후 시작된 자본주의 유입과 토지 조사에 의한 농촌붕괴 속 자유도항까지 확장시킨다.<sup>73</sup> 또한 강제동원에 한정하지 않고 “그들의 신세타령을 듣는다”는 데 초점을 맞춰 “어디서 태어나, 모국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빈곤해져 갔는지, 왜 일본에 건너가게 되었는지, 일본에 온 후의 생활은 어땠는지 등 적나라하게 그들의 일대기”를 들었다고 한다.<sup>74</sup> 가야누마는 이 구술자료 중에서 남편을 따라 왔으나 결국 혼자서 가족과 아이를 부양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 속에서, 식민지배, 가난, 피폭, 한센병 등이 겹쳐진 지점들이 드러나는 구술로 『몇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할머니들의 노래)』가 있다.<sup>75</sup> 이 책은 2012년 6월부터 가와다 후미코가 『세카이』 잡지에 연재한 ‘할머니의 노래’를 묶은 것이다. 재일조선인 여성들, 그 중에서도 ‘할머니’라고 불리는 나이 많은 여성들의 구술이다. 가와다 후미코는 1977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증언한 배봉기씨의 이야기를 듣고 『빨간 기와집』이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이번 책 서문에는 『세카이』에 연재된 첫 번째 글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그 글에서 가와다는 배봉기와 송신도를 만난 후부터 “일본군 성폭력 문제”는 필생의 작업이 되었고,(가와다/11쪽) 동시에 “다른 재일 여성들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알고 싶어졌다”고 한다.(가와

73 가야누마 노리코, 박성희 역, 「여성의 힘—『증언집 백만인의 신세타령』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9권, 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2004, 139-141쪽.

74 위의 글, 141쪽.

75 가와다 후미코, 안해룡 외 역, 『몇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할머니들의 노래)』, 바다출판사, 2016. (일본어판은 川田 文子, 『ハルモニの唄—在日女性の戦中・戦後』, 巖波書店, 2014.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가와다/쪽으로 표시.)

다/11쪽) 가와다는 자신이 할머니의 구술에 관심이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자가 아닌 ‘할머니’다. 왜 ‘할머니’인가? 할머니들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세계를 내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이야말로 생생한 언어를 쓴다. (...) 제일 할머니들은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착할 곳조차 없었다. 대부분은 동포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기 시작한 도시에서 살았다. 음식을 제공받는 정도이거나, 임금이 지급된다 해도 극히 낮은 임금 조건에서 어린 나이부터 노동을 시작했기에, 제일 할머니들은 전쟁 전부터 여성 노동자의 선구자였다. 할머니들은 언제나 일을 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에 소속되는 기회도 극히 드물었다. 새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으며 때론 자영을 하기도 했다.”  
(가와다/14~16쪽)

이 책에 묶인 할머니들의 구술을 보면, 식민지기부터 해방 후까지 여성 노동의 역사가 연결되어 보인다. 김분란씨가 대표적인데 「겪을대로 겪었지 고생은 나의 힘」이라는 글에서 3살 때 가족과 일본으로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노동을 해온 일대기가 나온다. 오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결혼한 남편도 본업은 ‘도박’이라고 할만한 사람이었고 분란씨는 함바집에서 죽도록 일하며 남편의 폭력을 참는다. 분란씨와 딸 애순씨는 남편이 죽은 뒤 청소회사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처럼 분란씨의 끊임없는 노동 속에서는, 전전과 전후의 구별도 1945년 8월 15일이라는 해방의 날도 모두 공백으로 남는다.

박수련씨의 「아저씨, 빨간 종이로 된 약 주세요」라는 구술을 보면 수련씨는 갓난쟁이일 때 일본에 와서 14세에 교토의 헤이안진구 근처 연사 공장 기숙사에서 일을 시작한다. 남편은 술꾼에 오입질에 틈만 나면 수련씨를 때리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가족을 부양하는 건 수련씨의 몫이었다. 그러던 중 수련씨는 한센병에 걸린다. 제일조선인은 한센병 발병비율은 높아 2011년에도 젠쇼엔 입소자 중 4.48%가 조선인이라고 한다. 수련씨의 삶에는 갖은 노동, 남편의 폭력, 가난, 그리고 한센병자의 삶이 겹쳐져 있다. 그 밖에도 「히로시마 거리가 통째로 사라졌

어]에는 피폭당한 세 명의 삶이 그려지며, 위안부였음을 증언했던 송신도 할머니의 전후는 온갖 날뎀팔이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텍스트들 이외에도 재일조선여성의 구술은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sup>76</sup> 그 속에는 여성간의 갈등도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여성의 노동’이라는 공통되고 겹쳐진 경험과 그것이 연결되는 내재적인 자기서사 공통성의 장소이다.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식민지기와 해방기를 보면, 전혀 다른 시공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 각각의 여성들의 상황을 각 고통이 지닌 특수성을 무화시키거나, 고통의 무게를 비교하고 재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서사 공통장’이라는 ‘장소’로 논의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된다. 여성들의 내재적 공통의 장소를 찾고 창조하는 것이,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일 것이다.

#### 4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번역·순환과 난민여성문학

본 논문은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서사적 특성과 이러한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 및 전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번역/순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를 둘러싼 새로운 번역 및 출판유통의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되면서 다시금 화제에 올랐지만 소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2016)은 한국 안에서 르포인가 소설인가라는 논란, 문학성에 대한 평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엄청난 공감을 끌어내면서 18개국으로 번역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8년 12월에 『82년생 김지영』이 사이트마리코의 번역으로 치쿠마 서방에서 출판된다.<sup>77</sup> 반응은 폭발적이어서 100만 부

76 成律子, 『オモ二の海峡』, 彩流社, 1994; 朴日粉, 金潤順, 『生涯現役—在日朝鮮人 愛と闘いの物語』, 同時代社, 2000; 여성만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かわさきのハルモニ・ハラボジと結ぶ 2000人ネットワーク 生活史聞き書き・編集委員会, 『在日コリアン女性20人の軌跡』, 明石書店, 2009.

77 チョ・ナムジュ, 齋藤真理子 역, 『82年生まれ, キム・ジヨン』, 筑摩書房, 2018.12.

를 돌파했으며 번역자인 사이토 마리코와 조남주 작가의 인터뷰, 기사, 라디오 등이 줄을 이었다.<sup>78</sup> 출판기념회는 도쿄 한복판에 있는 유서 깊은 서점, 기노쿠니야 홀 로비에서 열렸고, 아쿠타가와상 수상자인 여성 작가 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가 대담자로 나섰으며 전석 만석이였다.<sup>79</sup>

그런데 위의 인터뷰, 라디오, 기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 문학’ 이전에 ‘한국문학’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소개된다. 즉 『82년생 김지영』의 흥행 배경에는 일본에서 꾸준히 한국문학의 수용자층이 확산되어 왔던 상황이 있다. 또한 그 확산과 소개의 중심에 『82년생 김지영』을 번역한 사이토 마리코씨의 활동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문학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고래』, 『핑퐁』, 『카스테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희랍어 시간』 등 다수의 한국문학을 번역했고 박민규의 『카스테라』는 제 1회 일본번역 대상을 수상했다. 사이토씨가 중심이 되어 2017년 4월에 발간된 한국문학/문화 소개 잡지인 『중간 정도의 친구(中くらいの友だち)』는 현재 4호까지 나왔는데 창간호와 2호는 완판되었다. 또한 진보초에 있는 한국문학을 원서와 번역서 모두 소개하는 서점이자 카페인 「책거리(CHEKCCORI, チェックリ, www.chekccori.tokyo/)」는 쿠온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최근의 한국문학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경향은 1970~80년대 일본에서 이뤄졌던 한국문학 소개와는 다르다. 1970-80년대에 일본에서 한국문학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지하는 일본 신좌파와의 교류 속에서 소개된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문학은 기존 사회운동의 흐름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종합문예지 『文藝』도 2019년 가을호 특집을 「한국·페미니즘·일본」로 하여 고노스 유키코(鴻巣友季子)와 사이토 마리코의 대담, 김남주, 한강, 박솔뫼, 박민규 등의 소설 번역과 일본소설 중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함께 게재했는데 유례없는 속도로 팔려 완판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가을호는 한국

78 인터뷰: “100만부, 한국여성의 고뇌, 한국의 작가 조남주씨(100万部, 韓国女性の苦悩 韓国の作家・趙南柱さん)”, 『朝日新聞 Digital』, 2018.12.14.

79 <https://book.asahi.com/article/12109416>

과 일본의 페미니즘을 점검하는 에세이 섹션 뿐 아니라 「더 쉽게! 더 깊게! 한국 문학 벼락치기 키워드 모음」과 같은 코너도 마련했다. 이 코너는 한국과 관련된 단어들을 알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어 문면을 잡지 지면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사진도 게재했으며, 언급된 단어들은 ‘홍대’, ‘페미니즘과 문학’, ‘세월호 사고’, ‘6.25’, ‘월남전’에 이르기까지 분류의 기준을 찾기 어렵게 다양하여 눈길을 끈다.<sup>80</sup>

이처럼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이나 한국문학·문화가 얻는 인기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사이트 마리코씨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의 핵심에는 한국의 K-페미의 충격이 있다고 한다. 미투 운동 및 활발한 여성들의 활동이 일본에도 소개되면서 넓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양의 페미니즘 문학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여성들은 가부장 문화 등 여러 가지가 비슷한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에 더 깊이 공감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특히 명절에 겪는 어려움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sup>81</sup> 한국문학과 페미니즘이라는 양쪽의 힘을 받아 『82년생 김지영』은 일본에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여성 등 마이너리티 여성이 쓴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얼마나 소개되고 알려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저 긍정적인 기대만 갖기는 어렵다. 미투 운동과 『82년생 김지영』의 인기와는 달리, 일본에서 위안부 활동은 광범위한 호응이나 반응은 커녕 무시되고 비가시화되고 역사수정주의적인 반론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탈레」는 올해 8월 1일부터 김운성 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후」 전시를 했으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보조금 삭감을 언급했고 갖은 테러협박에 밀려 3일에 돌연 전시를 중단했다. 아이치 트리엔탈레에 참여하려던 각국 작

80 「더 쉽게! 더 깊게! 한국문학 벼락치기 키워드 모음」, 『文藝』, 2019년 가을호, 182-191쪽.  
 81 「지금 주목을 모으고 있는 현대한국문학, 그 배경과 매력은?(いま注目をあつめる現代韓国文学, その背景と魅力とは?)」斎藤真理子×すんみ×倉本さおり×荻上チキ(2019년 1월 25일(금)방송) (TBSラジオ 「荻上チキ・Session-22」평일 22시~) <https://www.tbsradio.jp/335619>



가들이 항의의 표시로 전시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이 사건은 일본에서 금기시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의 반응은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국문학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김숨의 책 『한 명』(현대문학, 2016년), 일본군 위안부 김복동 증언집인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현대문학, 2018년) 등 위안부의 증언을 토대로 한 소설들나 재현물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설들은 일본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뜨겁고 또 더욱 뜨거워진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번역되거나 수용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명』은 2018년 9월에 번역되었지만,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아마존 평점에는 매우 긍정적인 감상을 적은 글과 “1965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 끝났다. 읽을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최하위 평점을 준 코멘트가 공존한다.<sup>82</sup>

이처럼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문학번역에서 ‘젠더’는 부각되지만 ‘식민주의’는 후경화된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여성문학이나, 재일조선여성에 의해 쓰인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어떻게 읽힐까도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2006년 11월에 창간된 『땅에서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在日女性文学)』는 재일여성문학에 특화된 잡지로 2012년에 7권까지 간행된 뒤 중단한다. 중단이유는 편집자들의 연령이 많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어<sup>83</sup> 재일조선여성문학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3호(2008.11)의 특집 「왜 그녀들은 쓰는가?—창작활동을 하는 재일 여성에 대한 앙케이트」 중 13번 문항 “이제부터 재일 문학은 무엇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습니까?”<sup>84</sup>에 대한 대답을 보면 재일조선여성문학을 지속하는 데

82 キム・スム, 岡裕美, 『ひとり』, 三一書房, 2018.

83 「편집후기—중간의 말」, 『땅에서 배를 저어라—재일여성문학(地に舟をこげ—在日女性文学)』 Vol.7, 2012년 11월, 256쪽.

84 「왜 그녀들은 쓰는가?—창작활동을 하는 재일 여성에 대한 앙케이트(創作活動をする在日女性へのアンケートな彼彼女たちは書くのか)」, 『地に舟をこげ—在日女性文学』 제3호, 2008.11. 이 하 이 글에서의 인용은 ‘재일여성문학 3호/쪽’으로 표기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시인 이명숙처럼 재일문학으로서 독특한 경험을 표현해야 한다거나 동화작가 윤정숙처럼 재일문학의 확장성을 논하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시인인 나카무라 준(中村純)은 재일문학이 지닌 이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미디어 속에서 다뤄지고 표현되는 재일의 모습은 폭력적인 남자, 매맞는 여자, 빈곤, 빠칭코, 야키니쿠 등 스테레오타입에 고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재일조선문학3/66쪽) 여러 작가가 ‘재일’로 묶이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박경미는 “‘재일문학이라고 묶는 것에도 묶이는 것에도 좀처럼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있습니다”(재일조선문학3/70쪽)라고 토로하며, 시인 김미혜는 “재일만으로 머물지 않고 인간 본래의 다양한 테마를 표현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재일조선문학3/73쪽)라고 하며, 하기 루이코는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일문학이라는 좁은 틀로 표현활동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재일조선문학3/77쪽)라고 말한다.

1977년부터 “재일조선인작가를 읽는 모임”을 주도해 온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는 재일조선인문학이 왜 지속되어야 하며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를 “문학상의 전쟁책임”이라는 말로 강조한다.<sup>85</sup> 그러나 위의 새로운 재일 세대 작가들의 고민은, 재일조선여성들의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가 특정 공동체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열린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마주하게 한다.

이러한 물음 앞에서 최근 재일조선인의 삶과 오키나와의 관계 혹은 아이누와의 관계를 사유하는 저작이 나오고 번역된 것이 반갑다.<sup>86</sup> 또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한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난민여성문학의 공백을 직시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페미니즘과 난민을 대립시키는 포폴리즘에 맞서 사이버 공통장에서 형성된 대항적 공통장의 성과가 『경계없는 페

85 磯貝治良, 「〈在日〉文学二一五, そしてゆくえ……」, 『抗路』1号, 図書出版クレイン, 2015.9.1., 144쪽. 이소가야 지로는 2015년에 『“在日”文学の変容と継承』(新幹社, 2015)를 출판했다.

86 오세중, 손지연 역,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2019 및 석순희, 이상복 역, 『조선인과 아이누 민족의 역사적 유대』, 어문학사, 2019 등.

미니즘』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 반갑다.<sup>87</sup>

마지막으로 가족사진에서 시작하는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의 한 예를 들며 끝맺으려 한다. 『보통이 아닌 날들: 가족사진으로 보는 재일조선인, 피차별부락, 아이누,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여성의 삶』<sup>88</sup> 이 그것이다. 조경희가 「추천의 글—열린 친밀권의 힘」에서 언급하듯이 이 책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하여 거대역사와는 다른 아시아의 소수자 여성들의 삶을 펼쳐놓고, 동시에 가족이나 조직과 같은 억압적 친밀권이 아닌 외부로 열린 친밀권의 형성을 보여준다.(가족사진/6-7쪽) 즉 재일조선인, 피차별부락민, 아이누를 비롯 베트남 여성에게까지 열린 또 하나의 듣고-쓰기의 공통장을 형성한다. 이 보고-듣고-쓰기의 연쇄적 공통장은 15년 전부터 자이니치 여성의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 가족사진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는 “미리내” 구성원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고, 이러한 공통장이 기반이 되어 아시아의 소수자 여성들과의 만남으로 확장되었다. (가족사진/12쪽) 미리내는 “1991년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발족된 ‘조선인 종군 위안부를 생각하는 모임’으로 출발”한 뒤, 이후 이름을 미리내로 바꾸고, 다시금 “재일 조선인 여성들의 모임”이 된다.<sup>89</sup> 미리내 회원들은 “가족사진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이니치’가족 사진전>을 캐나다 밴쿠버(2001년)와 한국 광주의 비엔날레(2002년)에서 개최”한 뒤, “재일조선인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차별받는 일본의 여성들 즉 피차별 부락민들, 소수민족 아이누, 오키나와 등의 여성들과 교류하면서 몰랐던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삶을 공유”했다.<sup>90</sup>

이러한 만남 속에서 미리내 구성원들은 자신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 여러 난

---

87 김선혜 외, 『경계 없는 페미니즘 (제주 예멘 난민과 페미니즘의 응답)』, 와온, 2019.

88 미리내, 양지연 역, 조경희 감수, 『보통이 아닌 날들: 가족사진으로 보는 재일조선인, 피차별부락, 아이누,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여성의 삶』, 사계절, 2019. (일본어판은 皇浦康子, 『家族写真をめぐる私たちの歴史: 在日朝鮮人, 被差別部落, アイヌ, 沖縄, 外国人女性』, 御茶の水書房, 2016). 이하 이 글에서의 인용은 ‘가족사진/쪽’으로 표시.

89 엄미옥, 「가족사진 그리고 마이너리티 여성 증언의 서사,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고 소통과 연대를 모색한다 『보통이 아닌 날들』, 『아시아여성연구』 제58권 1호, 2019.4, 121쪽.

90 위의 글, 121-122쪽.

민 및 이주자들과 공통장을 만들어 간다. 책의 마지막 가족사진은 베트남 난민인 구 티 고쿠 트린의 것이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난민캠프부터 현재까지」라는 글을 “저의 삶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슬픔과 분노를 아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일베트남인 3세와 4세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아들이 이 나라에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가족사진/263-264쪽)라고 끝맺는다. 이러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한국 안에 많은 이주여성과 난민여성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책의 끝에서 황보강자는 오카모토 유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찍지않는 것은 무엇일까. (...) 우리는 가족사진에 찍히지 않은 것을 풀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sup>91</sup>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가족사진에 찍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는 ‘우리’ 속에 비가시화된 부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우리/그들’을 동시에 부정하는(혹은 동시에 긍정하는) 힘을 지닌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宋惠媛 編著,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1,2』, 綠蔭書房, 2014.

宋惠媛 編著, 『在日朝鮮人文学資料集1954~70 (全3卷セット)』(在日朝鮮人資料叢書 14), 綠蔭書房, 2016.

『アジアと女性解放』, アジアの女たちの会, 1977-1992.

「朝鮮料理店・産業「慰安婦」と朝鮮の女性たち～埋もれた記憶に光を～」, 高麗博物館, 2017年企画展, 2017.8.30.~12.28.

『地に舟をこげー在日女性文学』, 在日女性文芸協会, 2006.11-2012.11

91 인터뷰어: 황보강자, 정리: 오카모토 유카, 「인터뷰: 하기와라 히로코에게 묻다—가족사진에 찍히지 않은 것: 사진의 진실, 혹은 거짓」, 미리내, 앞의 책, 271-272쪽.

『文藝 2019年秋季号: 韓国・フェミニズム・日本』, 河出書房新社, 2019.7.

『抗路』, 抗路舎・クレイン, 2015.9.

「100万部, 韓国女性の苦悩 韓国の作家・趙南柱さん」, 『朝日新聞 Digital』,  
2018.12.14.

## 단행본

김미정, 『움직이는 별자리들』, 갈무리, 2019, 15-16쪽.

박광현 오태영 편저, 『재일조선인 자기서사의 문화지리 1,2』, 역락, 2018, 137-139쪽.

윤대석, 「한국에서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식민지국민문학론』, 역락, 2006, 63쪽.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한길사, 2011, 30쪽.

김선혜 외, 『경계 없는 페미니즘 (제주 예멘 난민과 페미니즘의 응답)』, 와온, 2019, 1-204쪽.

가와다 후미코, 오근영 역, 『빨간 기와집』, 꿈교출판사, 2014, 65쪽.

가와다 후미코, 안해룡 외 역, 『몇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할머니들의 노래)』, 바다출판사, 2016, 11쪽, 14-16쪽.

로잘린드 C. 모리스 엮음, 가야트리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513쪽.

미리내, 양지연 엮김, 조경희 감수, 『보통이 아닌 날들: 가족사진으로 보는 재일 조선인, 피차별부락, 아이누,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여성의 삶』, 사계절, 2019, 6-7쪽, 12쪽, 263-264쪽, 271-272쪽.

송혜원 역,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162쪽.

서아귀, 유라주 역, 『할머니들의 야간 중학교』, 오월의 봄, 2019, 13-14쪽, 73쪽. 석순희, 이상복 역, 『조선인과 아이누 민족의 역사적 유대』, 어문학사, 2019, 1-242쪽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3, 237쪽, 247쪽.

오문자·조영순, 최순애 역, 『봉선화, 재일한국인 여성들의 기억』, 선인, 2018,

- 14쪽, 18쪽, 37쪽, 43쪽, 49쪽, 68쪽, 85쪽, 166쪽, 237쪽.
- 오세종, 손지연 역,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2019, 1-347쪽.
- 이홍섭, 번역공동체 잇다 역, 「역자서문」, 『딸이 전하는 아버지의 역사』, 논형, 2018, 서문.
- かわさきのハルモニ・ハラボジと結ぶ2000人ネットワーク 生活史聞き書き・編集委員会, 『在日コリアン女性20人の軌跡』, 明石書店, 2009, 1-252쪽.
- キム・スム、岡裕美, 『ひとり』, 三一書房, 2018, 1-275쪽.
- 松井やより, 『女性解放とは何か』, 未来社, 1975, 1-283쪽.
- むくげの会, 『身世打鈴—在日朝鮮女性の半生』, 東都書房, 1972, 1-230쪽
- 朴日粉, 金潤順, 『生涯現役—在日朝鮮人 愛と闘いの物語』, 同時代社, 2000, 1-218쪽.
- 成律子, 『オモニの海峡』, 彩流社, 1994, 1-275쪽.
- 宋恵媛,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1-351쪽.
- 小熊英二、姜尚中,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 2008, 1-781쪽.
- チョ・ナムジュ, 斎藤真理子 역,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 筑摩書房, 2018.12, 1-189쪽.
- 百万人の身世打鈴編集委員, 『百万人の身世打鈴(シンセタリヨン)—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恨(ハン)」』, 東方出版, 1999, 1-654쪽.

## 논문

- 가야누마 노리코, 박성희 역, 「여성의 힘—『증언집 백만인의 신세타령』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9권, 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2004, 129-138쪽.
- 강가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년, 1-119쪽.
- 권범철,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제60호, 2017년, 119-149쪽.
- 박죽심, 「재일조선인 여성작가의 존재방식에 대한 연구—이양지와 유미리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73호, 중앙어문학회, 2018, 159-191쪽.
- 박진영, 「여성노동운동의 아시아 연대」 『페미니즘 연구』 제8권 1호, 한국여성연

- 구소, 2008.4, 219-229쪽.
- 송연옥, 「재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본 일본 구술사 연구 현황」, 『구술사연구』 제 6권 2호, 구술사학회, 2015.12, 197-220쪽.
- 엄미옥, 「가족사진 그리고 마이너리티 여성 증언의 서사,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고 소통과 연대를 모색한다 『보통이 아닌 날들』」, 『아시아여성연구』 제58권 1호, 2019.4, 121~131쪽.
- 오카마리, 이재봉·사이키 카쓰히로 역, 「제3세계 페미니즘과 서발턴」, 『코기토』 제73호, 2013.2, 599-629쪽.
- 윤정화, 「재일한인작가 유미리 소설에 나타난 ‘장소성’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호, 2016. 9, 101-120쪽.
- 황호덕, 「탈식민주의인가, 후기식민주의인가」, 상허학보 제51집, 상허학회, 2017.10, 315-357쪽.
- 樋口雄一, 「朝鮮料理店女性と産業慰安婦」, 『海峡』, 1992.10, 16-30쪽.
- 樋口雄一, 「日本国内の朝鮮料理店と産業慰安婦」,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90号, 2018年夏号, 24-33쪽.

## Abstract

The Invisible in the Transnational Literature of Women: Literary Works of Zeinichi Women in “Commons-place of Self-epic” and its Texts

Shin, Jiyoung

This paper points out what we have missed seeing in the writings of Asian women, although we are now seeing transnational literature spreading widely, by focussing on the literary works of zeinichi women, And it introduces the new literary trends of the coming of Zeinichi woman literature into the Korean literary academia.

Keeping in mind the invisible in the female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which have attracted attention since around 2014. It defines the features as “commons-place of self-epic” and explores the “place” by looking into the way women desired to learn and write, and the way they attained the abilities to express themselves. Secondly, it examines the early stage of the solidarity movements done by women, which underlay the formation of “commons-places of self-epic.” It addresses the oral statements, testimonies and others stated in the Zeinichi writings which began to draw the

attention in the 1970's and makes a critical study on the Asian women solidarity movement Matsuri Yaori initiated globally and the campaigns for women solidarity conducted in Korea in the period. Lastly, it considers the possibilities that "commons-places" and the texts in them may be put into a diverted or asymmetrical distribution in the media circulation in Korea and Japan, by extension, in Asia. In the Japanese society, for example, the Korean novel "Kim Ji-young Born in 1982," when published in Japanese, sparked interests in K(orean)-feminism and K(orean)-literature. In stark contrast, the Japanese society displays their total indifference toward the problems of comfort women, the colonialism and the status of zeinichi women and even ignores them.

In su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the "commons-places of self-epic" and their texts, the relations between the women in the "commons-places" in the 1970's, and the asymmetrical circulation of publishing markets, and then it puts forward the discursive space where the "commons-place of self-epic" can be read and widened and where the literary works of zeinichi women can also be discussed properly and fairly in their own perspectives.

Key words: zeinichi woman literature, transnational literature, commons-place of self-epic, text, K(orean)-feminism, K(orean)-literature, Asian women, solidarity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